

수도권 비규제단지 물량 쏟아진다... 이달 4324가구 분양

양평·가평·여주·이천·파주·포천 6곳 분양, 재당첨 제한 없이 청약 지역에 따라서는 전매제한 6개월



‘양평 우방 아이유셀 에코리버’ 조감도.

이달 중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분양대전(大戰)’이 펼쳐진다. 전매제한, 청약요건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전망이다. 또 교통여건 개선으로 서울로의 진출입이 쉬워진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2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리얼투데이의 조사에 따르면 이달 수도권 비규제지역 분양 예정 물량은 총 6곳, 4324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양평군 ▲가평군 ▲여주시 ▲이천시 ▲파주시(문산읍은 비규제) ▲포천시 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대출, 전매제한, 청약요건 등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수요자에게 인기가 높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는 만 19세 이상

의 해당 지역, 서울, 경기도, 인천 지역 거주자가 가입 후 12개월 이상의 청약통장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만 충족되면 세대주와 주택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이 없어 기존 당첨이력과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자연보존구역 등 지역에 따라서는 전매제한 기간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짧다.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경기 양평

군에서는 2개 사업지에서 공급된다. 우선 SM우방산업은 강상면 병산리 24-1 일대에 ‘양평 우방 아이유셀 에코리버’ 77~108㎡ 219가구를 공급한다. 양평군 인근에서는 현재 ‘수도권 제2 외곽순환고속도로 양평~화도(2022년 예정)’와 ‘양평~이천고속도로(2026년 개통 예정)’의 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개통되면 서울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이어 일신건설은 양평읍 공흥리 418 일대에 ‘양평 공흥3지구 휴먼빌’ 84㎡, 418가구를 공급한다.

가평군에서는 현대건설이 가평읍 읍내리 205-1 일대에서 ‘힐스테이트 가평 더뉴클래스’ 59~84㎡ 451가구를 공급한다. 단지는 차량약 6분거리인 ITX가평역(경춘선)에서 ITX를 이용해 서울 용산역까지 약 6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청량리역까지는 40분대에 갈 수 있다. 가평터미널 등이 가깝고, 단지 인근 75번 국도를 통해 설악IC 진입이 쉽다.

경기 여주시에서는 동부건설이 교동 299-7 일대에 ‘여주역 센트레빌 트리니체’ 66~76㎡ 404가구 가운데 17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뛰어난 교통여건으로 판교역까지 40분대에 이동할 수 있고, 강남까지도 1시간 안으로 달을 수 있는 경강선 여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GS건설이 관고동 산 13-1 일대에 ‘이천자이 더파크’

59~107㎡ 706가구를 분양한다. 이천자이 더 파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건설되며,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락공원 부지에는 축구장 18배 정도 크기의 부락공원시설이 조성된다. 단지 주변으로 중부고속도로서이천IC, 영동고속도로 이천IC 등이 있다.

경기 파주시에서는 동문건설이 문산읍 선유리 878-1 외 174필지 일대에 ‘파주 문산역 2차 동문 디 이스트’ 59~84㎡ 1503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2017년 동문건설이 ‘파주 문산역 1차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 이후 4년 만에 문산 일대에 공급하는 새 아파트로, 단지와 접해 있는 통일로(1번 국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 포천시에서는 대우건설이 소흘읍 송우리 225-1 외 16필지 일대에 ‘태봉공원 푸르지오 파크몬트’ 84~109㎡ 623가구를 공급한다. 거주 의무기간이 미적용되며, 중도금 대출과 준공전 전매가 가능하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글로벌 조선산업 패러다임 변화 선도... 친환경 집중 투자”

IPO 간담회

현대중공업

1800만주 신주 발행 예정 7일~8일 일반투자자 청약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현대중공업이 오는 16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2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1위 조선사업과 엔진사업을 바탕으로 글로벌 조선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친환경 미래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다가올 50년에서도 조선업계 1위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1972년 설립된 후 조선사업과 엔진기계사업, 해양플랜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액화천연가스(LNG)선을 포함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고, 엔진 등을 직접 생산 및 판매

한다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단 평가를 받는다. 공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은 조선 75.40%, 엔진기계 18.32%, 해양플랜트 5.51%였다.

현대중공업은 미래비전 달성을 위해 친환경 미래 선박 기술 개발과 스마트 조선소 구축, 해상 수소인프라 투자를 미래 핵심 3대 사업으로 선정한 상태다.

먼저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는 수소

및 암모니아 선박, 전기추진 솔루션 등에 집중해 고부가가치 선종의 수익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4일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사로부터 1조6500억원 규모의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을 수주하기도 했다. 이외 디지털트윈 등 디지털선박 기술의 고도화로 자율운항 시장 진출도 가속화 할 예정이다.

또한 2030년까지는 스마트조선소를 구축해 효율적인 생산체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해상 수소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해상 신재생발전 및 그린수소 생산, 수소 운송 인프라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대 1조8000억원 규모인 IPO 조달자금 중 약 7600억원을 초격차 기술 확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선박 및 디지털 선박 기술 개발에 3100억원, 스마트 조선소 구축에 3200억원, 수소 인프라 분야에 1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중공업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8조3120억원, 영업이익은 325억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4314억원이었다. 올 상반기 매출액은 3조9349억원이며,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각각 3943억원과 3455억원이다.

순차입금 비율은 34.9%를 기록 중이다. 사측은 “지난해 말부터 신규 수주가 증가해 선수금 유입이 늘어났다”며 “국내 주요 조선사 평균인 107.9%에 비해 (순 차입금 비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재무건전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IPO를 통해 전체 지분의 20% 규모인 1800만주를 신주 발행한다. 현재는 그룹 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9월 2일~3일 양일간 수요 예측을 한 후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7일과 8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해 16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양유경 기자 noon@

하나금융투자

비대면 IRP 수수료 무료

하나금융투자가 모든 비대면 IRP(개인형 퇴직연금) 손님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9일까지 수수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수수료 무료 혜택은 하나금융투자에서 새롭게 비대면 IRP 계좌를 개설한 손님과 기존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개설해 현재 이용 중인 손님이 대상이다. 또한 하나금융투자에서 비대면 신규 IRP 계좌를 개설한 후 타사의 IRP 계좌를 계약이전해 오는 손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대면 IRP 계좌의 수수료 무료 서비스를 기념해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주는 이벤트도 10월 29일까지 진행한다. 하나금융투자에서 비대면 IRP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30만원 이상 입금한 손님에게는 1만원, 타사 IRP 계좌를 계약이전 한 손님에게는 이전 금액에 따라 1만원부터 최대 3만원이 제공된다.

/양유경 기자

KB증권

글로벌 원 마켓 인기몰이 가입 고객 100만명 돌파

KB증권은 해외주식 원화 거래 서비스인 ‘글로벌 원 마켓(Global One Market)’ 서비스 가입 고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 원 마켓’ 서비스는 환전 없이 원화(KRW)로 글로벌 6대 시장(한국·미국·중국·A(후강통, 선강통)·홍콩·일본·베트남)의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통합 증거금 서비스다.

‘글로벌 원 마켓’ 가입 고객 100만명 돌파는 2019년 1월 출시 후 2년 8개월만이다. 특히, 올해는 8개월 만에 52만명이 증가하며 최근 증가세인 해외주식 투자와 더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양유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TDF 수탁고 3兆 돌파

올해 1조2799억 증가

미래에셋자산운용 TDF(타깃데이트 펀드) 수탁고가 3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운용사 가운데 최다다. 올 2월 수탁고 2조원을 돌파한 지 반년 만이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종가 기준 미래에셋 TDF는 3조 219억원이다. 올해 1조2799억원 증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2011년 TDF를 출시했다. 2018년 말 3755억원 규모였던 TDF는 2019년 11월 1조원을 돌파

했고, 2021년 2월에 2조원, 8월에는 3조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국내 TDF 시장점유율은 43.7%에 이른다.

미래에셋 TDF는 전 세계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으로,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에 맞춰 투자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DF 출시부터 클라이드 패스를 자체 설계해 운용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자산배분 TDF와 전략배분 TDF의 총 13가지 상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배분 TDF는 주식, 채권, 부동산 및 원자재 등 다

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한다. 전략배분 TDF는 기본수익전략(시중금리+α 수익 추구), 시장중립전략(절대수익 추구), 멀티인컴전략(인컴 수익 추구) 등 전략에 분산 투자한다. 8월 말 기준 자산배분 TDF는 4801억원, 전략배분 TDF는 2조5418억원으로, 올해 각각 1554억원, 1조1245억원 증가했다.

미래에셋 TDF 중 규모가 가장 큰 펀드는 ‘미래에셋전략배분TDF2025혼합자산투자신탁’이다. 펀드 규모는 8627억원에 달한다. 2017년 3월 13일에 설정된 이후 올 8월 말까지 수익률이 42.82%에 달하며, 최근 3년과 1년 수익률은 각각 29.32%, 12.70%다.

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WM연



금마케팅부부장(전무)은 “연금자산 운용에 익숙치 않은 투자자들이 투자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TDF에 관심이 많다”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금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유경 기자